

세계기상기구, 강인식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IMO Prize' 안겨줘

2021.06.28.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열린 집행이사회(6.14.~25.)에서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강인식 교수에게 기후과학 분야에서 이룬 뛰어난 공로를 인정, 기상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IMO(국제기상기구) 상을 수상키로 결정했다.

1955년 제정된 이 상은 WMO의 전신인 국제기상기구(IMO)의 이름을 따 'IMO Prize'로 명명되었으며, 기상, 수문, 기후 또는 관련 분야에서 평생의 업적을 인정 받은 개인을 선정하여 매년 수여된다. 강교수는 66회째 수상자가 되는 셈이다.

이 상이 강교수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은 그가 이룬 과학 업적이 인정받은 결과인데, 집행이사회는 선정 이유로 강교수가 기후 모델링 및 예측 분야에서의 업적이 두드러지며, 현업 및 연구 기후 센터 설립에 대한 선구자적 기여, 개발 도상국 출신을 비롯한 차세대 과학자 육성 등에 공헌하였고, 유수의 과학저널에 17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점 등을 들었다.

강 교수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오랜 세월동안 국제기후 공동체와 함께 일해 왔고, 특히 2013-2018년 간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공동과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역학적 통계 보정을 결합시킨 다중 모델 앙상블 계절 예측 시스템을 개척했는데, 현업 계절예측에서 다중 모델 앙상블 예측이 보여준 가치는 APEC 기후센터(APCC)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APCC 설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2006년 설립 이후 APCC의 과학자문위원회의 공동 의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APCC는 현재 WMO가 지정한 11개의 현업 센터로부터 계절예측자료를 수집 받아 WMO를 대표하는 다중 모델 계절 예측 자료 생산하는 중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 교수는 서울대 퇴직 이후, 2018년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전문가로 선출되어 중국의 제2 해양학 연구소의 인도양 센터 과학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강 교수는 그가 새로 결성한 중국 연구팀과 함께 해양부이와 해양크루즈선을 이용하여 해양 현장 관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인도양 관측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를 높일 것이다.

그의 과학적 업적 외에도, 그는 기상·기후 과학계의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데 평생 헌신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그는 뛰어난 차세대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 대부분은 현재 미국과 한국 내에서 교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연구 기관에서 유명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제기후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의 IMO Prize 수상식은 2022년 열릴 WMO집행위원회에서 그의 과학강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